

2

엘리아를 돌보신 하나님

열왕기상 16:29~17:24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엘리아에게 가져왔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여로보암왕보다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 그 우상 바알을 섬겼습니다. 또 바알을 위해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합의 행동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오랫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경고한 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어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었습니다. 그러자 까마귀들이 아침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가져왔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얼마 후에 시냇물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의 한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엘리아가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자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아: 마실 물과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과부: 저에게는 떡이 없고 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밖에 없는 걸요.

이것을 먹고 나면 나와 내 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아: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나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께서 비가 올 때까지 가루와 기름을 계속 너희 집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느니라.

과부는 엘리아의 말대로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아와 과부 그리고 과부의 아들은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 암송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5)



엘리아를 돌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담대히 말씀을 전한 엘리아를 아합과 가뭄으로부터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누구)을 통해, 어떻게 엘리아를 지켜 주셨는지 아래에 적어 보세요.



.....
.....



.....
.....



엘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시편 33:19)



사르밧 과부의 믿음



엘리아가 왔을 때, 사르밧 과부에게는 기름과 가루가 얼마나 있었나요?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라면, 엘리아가 부탁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것을 엘리아에게 먼저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아의 말을 믿고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누가복음 12:22~31



읽은 말씀을 요약해서 적어 보세요.

.....
.....
.....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까마귀 같은 새와 들의 꽃도 기르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와 꽃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생각해보고 적어 보세요.

.....
.....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새보다, 들의 꽃보다 나를 더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을 어떻게 돌보고 계신가요?

.....
.....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경험이 있다면 적어 보세요.

.....
.....



누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을 읽고 아래에 적어 보세요.

.....
.....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먹을 것, 입을 것 등)을 더해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
까요? 부모님이나 주위의 구원받은 분들과 교제하고 적어 보세요.

.....
.....
.....
.....
.....
.....
.....
.....
.....
.....

예 화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허드슨 테일러는 몇 군데 모임에 참석한 후 교회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러시아의 귀족인 바브린스키 씨가 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테일러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런던에 있는 교회에 갑니다.”
“그러면 저하고 함께 앉으실까요?”

두 사람은 함께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브린스키 씨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일러에게 수표를 주었습니다.



“이거 작은 돈이지만 중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쓰도록 하세요.”

테일러는 수표의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표는 50파운드나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돈으로 수천만 원이나 되는 큰돈이었습니다.

“바브린스키 씨 혹시 5파운드를 잘못 쓰신 것 아닌가요?”
“그렇군요, 5파운드를 잘못 썼군요. 하지만 50파운드 모두 다 받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테일러가 교회에 돌아와 보니 모두들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보낼 돈이 필요한데 49파운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테일러는 바브린스키 씨가 준 돈을 꺼내 책상에 올려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부모님난

선생님난